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강경지역아동센터



2018. 1

강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그 아쉬움과 애뜻함 때문에 몇 번이고 사진과 동영상을 들여다봤다. 사실 가벼운 마음에서 신청하게 된 봉사였다.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내가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순수함과 사소한 것을 향한 감사함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얻게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고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모습은 가슴 한편에 따스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소원나무에 자신의 소원을 적는 활동에서 돈이 없어도 가족만 행복하다면 된 다며 순수한 웃음을 보이던 아이들을 잊을 수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점도 있었다. 아이들이 헤어짐에 익숙해 보였고 또 헤어짐에 익숙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첫날에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함께 마지막 날에는 덤덤하게 인사해주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아팠다. 아직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된 우리보다 더 많은 헤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밤늦게까지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서로를 배려해주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프로그램 진행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팀원들의 모습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큰 배움을 얻게 해주었다. 강경에서의 4박 5일은 그 어떤 활동보다 값지고 보람 있었으며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던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화 봉사단과 아이들 덕분이었으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할 것 같다.

학기 중에도 초등학생 교육 봉사를 자주 경험했던 나는 이번 강경에서의 봉사활동도 학기 중에 했던 교육 봉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습 지도만을 도와 주었던 기존에 했던 교육봉사와는 달리 이번 봉사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그 속에서 학습하고,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박 5일 동안 성인인 내가 아이들을 보며 반성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적이 많이 있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순간마다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큰 사랑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었지만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따뜻하고, 마음이 예뻐다. 아이들은 욕심 부리지 않았고 양보할 줄 알았으며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나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신청한 이번 봉사는 오히려 내가 아이들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온 것 같다. 또한 함께 고생한 이화봉사단 팀원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팀원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주었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팀원들의 모습에도 크게 감동하고 감사함을 느꼈다. 이번 강경에서의 봉사는 그 어떤 경험보다 값진 경험이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까웠던 5일이었다. 봉사를 다녀와서도 아이들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고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후회를 했다. 이번 5일은 맑고 따뜻했던 아이들과 사랑 넘치는 이화봉사단 팀원들 덕분에 그 어떤 날들보다 행복했다.

김*주

4박 5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강경 중앙지역 아동센터에서 보낸 5일은 신체적으로는 길고, 정신적으로는 짧았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신체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꽤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마음을 온전히 나누기에는 짧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베풀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 그리고 팀원들에게서 뭔가 더욱 얻어간 것은 나 자신이었다. 첫날,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이 센터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익숙함을 알지 못하고, 아이들의 반응에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은 낯선 우리가 왔음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한 것은 우리였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준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사소한 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팀원들에게서 배울 점도 정말 많았다. 봉사 팀원들과 매일 밤 아이들과 활동에 대해 회의하면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특히 4일차 활동을 할 때, 전날 준비를 많이 하였고, 이는 4일차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원들은 자신이 프로그램 리더가 아닌 날에도 열정적으로 활동 진행을 도왔다. 또한, 선뜻 팀장을 하겠다며 나서준 이 이후 팀원이 아니었더라면 순조로운 활동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 이후 팀원을 보면서 정말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였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 활동에 참가할 때에는 '좋은 일'을 하러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봉사 이후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분 좋은 무거움이다. 팀원들과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통해 많은 점을 배웠고, 나아가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부딪힐 수 많은 장애물들이 없어지도록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수많은 생각과 반성, 성찰 그리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아이들과 겨울 방학을 짧게나마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봉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4박 5일이었다. 처음에는 참여도나 집중도가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나니 아이들과 봉사단 모두 진심을 다해 보낸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하루 종일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라고 안내를 받고 계획을 했으나 센터 자체의 오전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러나 매 회의마다 정성껏 준비했고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주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프로그램 진행 이외의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었는데 학습 환경이 안타까울 정도로 빛이 나는 아이들이 많았다. 여건이 된다면 빛날 것 같은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물론 그 자체로도 빛이 나고 한 명 한 명 모두가 예뻐다. 봉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봉사라는 말보다 배움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다.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센터에 오는 아이, 선생님들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아이 등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년엔 다시 오라는 아이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봉사팀 모두가 진심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할 만큼 보람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아이들 모두, 센터에서의 4박 5일 모두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박*현

봉사에 참여하고자 왔지만 오히려 스스로 아이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이 더욱 많아 고맙다는 마음이 앞선다.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존재만으로 예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아서 장난기 있는 아이가 조금만 장난을 치려해도 안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긴장도 풀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아무 의도 없이 장난치는 모습도 귀여워보이기 시작하고, 옆에서 다른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만 같았던 아이도 알고 보니 그 아이를 위한 교재가 없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오해를 깨우친 것에 이어 아이들의 예쁜 모습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풍선자동차 경주에서 지면 속상할 법도 한데 풍선자동차가 자신을 좋아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거나, 게임을 할 때 다른 팀에 자신의 형제가 있으면 팀에 개입치 않고 형제를 응원하고, 나이 어린 동생들이 게임에 서툴러 잘 참여하지 못해도 화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돕는 등 어여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많은 감동과 좋은 의미의 충격을 수도 없이 받았던 5일이었다. 봉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보고 싶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기에 다음 봉사가 더욱 기다려진다.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외부인들과의 헤어짐이 익숙해서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또한 오전에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기 때문에 오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에 당황했었다. 강경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애기와 행동들을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함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위 아이들을 먼저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다. 특히 마지막에 모든 아이들에게 상장과 롤링페이퍼를 써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4박5일 동안의 과정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서 좋았다. 시작할 때는 5일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난 후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웠다. 2주 정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아이들과 참여 봉사자 둘 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여름 방학 때 계절 종강 후 봉사가 계획된다면 강경아동센터로 매년 봉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봉사 일정이 이 부분을 배려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